



입당송 | 시편 17(16),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 아모 7,12-15

화답송 | 시편 85(84),9ㄱㄴㄷ과 10.11-12.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

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에페 1,3-14<또는 1,3-10>

복음환호송 |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 마르 6,7-13

영성체송 |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중의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러 저러한 인간적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파견하시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곧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꼭 필요한 지팡이와 신고 있는 신발과 입고 있는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파견된 제자들이 위임된 사명을 수행할 때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파견한 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갈 수 없는 물질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는 가난한 전도여행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고, 언제나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을”(마르 3,14 참조) 더욱 깊이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순례의 여정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따르며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난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가난의 삶은 파견하신 분의 뜻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데 민첩하게 합니다. 가난의 덕을 실천하는 것은 파견된 이들을 겸손하게 하며 불필요한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신경 쓸 일이 많아져 본질적인 일에

마음이 무뎠지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들이 앞장서 이러한 복음적 가난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교우들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적 가난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신의 안락만을 위한 것인지,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 삶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더 내면적인 차원에서 가난의 실천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를 식별케 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일 소유한 재산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그 재산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한 사람의 내면을 차지한다면 보다 올바른 시선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소유한 재산을 사용하여 많은 선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소유물과 세상의 가치에 삶의 중심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길을 떠날 때 최소한의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차코 해변, 페루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마르 6,8)

홀로 해변을 걷는 이의 실루엣에 지독한 고독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이 마냥 외롭게만 느껴지지 않는 건 그를 감싼 석양빛이 따뜻해서입니다. 빈손으로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겠지요. 나그네를 품어준 석양빛처럼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늘 그분의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하길 것입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류지현 안나
아나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요즘 후보에 글을 쓰면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많이 생각 납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하늘나라로 떠나신 건 7년 전 주님 승천 대축일, 이후 매년 5~6월이 되면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깊은 가슴앓이로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방에는 서랍마다 수년간의 매일 미사 책과 후보, 그리고 신문에서 매일 스크랩하신 3개 국어 학습 노트 수십 권이 있습니다. 성체를 귀하게 영하셨던 아버지가 몇 번의 수술 이후엔 평일 미사를 집에서 대체하시며 미사 책이 필독서로 쌓여갔습니다. 여러 해 전의 사고가 몇 차례 수술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해의 12월 31일, 송년 생방송 진행을 위해 늦은 밤에 집을 나서는 딸이 안쓰러우셨던지 아버지가 동행하셨습니다. 장시간 추운 야외 일정에 대비해 보신각 근처 한 건물 2층에 들렀다가, 한복을 입고 어렵게 어두운 층계를 내려오는 딸만 조심스럽게 챙기시던 아버지가 일어 있던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뼈가 부러져 꼼짝 못 하시는 아버지와 다가오는 방송 시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염려 말라.”고 애써 미소를 보이셨고, 어서 가라 손짓하시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저는 현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송 후 연락해 보니,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 가셔도 혹시 딸이 걱정 가득한 모습은 아닐지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다가 저의 미소 띤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년가량 깁스로 고생하시면서도 염려하는 딸의 마음을 헤아려 단 한 번도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배려와 진한 사랑을 남기신 아버지는 늘 ‘성령

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을 믿고 사셨고, 자녀들이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하신다.”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좋은 일은 ‘주님의 안배하심으로...’가 아버지 사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현실감 없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모든 걸 너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손해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 신앙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느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고, 더 큰 위험에 처할 위기에서 구제되었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고난에서 일어섰는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 뜻이었음을. 지금 이 지면으로 나의 작은 신앙 체험을 나누려는 부르심까지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임을.

그래서 저 또한 아버지에게서 새겨진 그 신앙의 뿌리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됩니다. 저의 시아버지께서 삶의 지표로 삼으시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인생의 선물로 전합니다.

글
나를 이끄는
성령구절

두려워하지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다
(이사야서 41, 40)

이은영 살로메
수원교구 분당성마태오성당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례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원칙으로 춘계 주교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세례명 변경은 물론, 견진성사 후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는 것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명 변경 불허를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였던 성인을 본받으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명이 담은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감안한다면, 신앙생활의 중간에 세례명을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세례명을 선택할 때, 단지 어감이 좋고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던가, 해외 유명인의 이름을 따오기 위해 고르는 것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선택은 세례명을 통해 추구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중세 시대에 이교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는 풍습이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례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교식 이름만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지금도 교회법에 비슷한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성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제855조)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만약, 불리는 이름에 민감한 주변분들, 가령 어린 자녀들이 세례명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권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르는 방식을 바꿔보라고 말이죠. 세례명은 많은 경우에 성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언어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미카엘은 라틴어식 표현으로, 영어로는 마이클, 프랑스어로는 미셸, 스페인어로는 미겔, 러시아어로는 미하일 등으로 불립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부른다고 세례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목표로 삼을만한 성인의 삶을 비롯한 세례명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 성직자와 수도자의 정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업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만 62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고, 공무원도 만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 아마 성직자나 수도자의 정년이 궁금하셨던 것은 이 교회 내 ‘직업’들은 특성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던 외중에 나온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직자와 수도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성품 성사와 수도서원을 통해 받는 ‘신분’입니다. 수도자는 서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 살게 되며, 특히 성직자는 철회될 수 없는 성사의 효력 안에서 한 번 성직자가 되었다면 계속 성직자로 남게 됩니다. 교사가 교사직에서 은퇴하는 것과는 달리, 할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사제, 사제 은퇴식 등의 용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신부님들도 만 70세에 정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당신부로서의 정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성찬례를 집전하며, 공동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교회의 3대 직무를 대신해야 하는 사제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사제, 은퇴식 등의 표현보다는 원로 사제, 원로 사제 감사미사 등의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살면 다 '가족' 아닌가요?

- 가정의 의미와 역할 -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69.7%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응답도 64.3%였지만 전년보다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가정' 대신에 개별 구성원을 강조하는 '가족'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한다는 명분으로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을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고,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법률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거나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평생을 거는 사랑을 바탕으로 혼인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양육함으로써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개념과 소명과 그 가치를 약화시키고 상대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류가 지켜온 고유한 가족 혹은 가정의 개념은 단순히 함께 살며 생계를 이어가며 돌보는 관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시대가 변해도 그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혼인 공동체와 혼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신적 기원을 지니고 있고, 어떤 인간적 권위도 그 특성을 훼손할 수 없는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이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은 남녀가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며 헌신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연적 사회"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07).

교회는 개인과 사회에 고유한 선익이 되는 이 가정 공동체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사목헌장 47항).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부부 사랑 안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사랑 안에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또한 아이는 가정에서 신앙을 전해 받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와 덕목을 배움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성실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교회는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령 이런저런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해도 이들도 대부분 본래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출발했고, 이런 가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 사회도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하지 않아도 좋고, 자녀를 낳지 않아도 좋고, 혼인 안 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거나 기르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부의 책임 있는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출산과 자녀 교육을 기본적인 소명으로 삼는 가정의 고유한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정우 후고 신부 |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베르겐의 아름다운 자연이 음악에 깃들다 그리그 & 시셀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음악칼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예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풍경 사진으로 제작된 달력이 많았습니다.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동경이었을까요? 이국적인 풍경의 달력이 인기였지요. 그중 7, 8월 한창 더울 때, 해변 풍경도 좋았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 질푸른 침엽수림이나 까마득한 해안절벽 아래 깊고 푸른 바다 정경은 바람 없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마의 땀을 식혀줄 서늘한 풍경이었습니다. 빙하가 만들어낸 노르웨이의 피오르르(fjord) 사진들입니다.

여름에 더욱 가고 싶은 나라 노르웨이에는 딱 한 사람의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바르 그리그(Edvard Hagerup Grieg, 1843~1907).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르웨이가 배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그 이전 노르웨이에는 민속 음악 외에 예술 음악이라고 할 만한 음악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다가 15세에 독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갑니다. 독일 유학 후 고국으로 돌아와 지휘자, 작곡가, 음악원 원장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했는데, 그가 피아노협주곡을 작곡하고, 헨리크 입센(Henrik Ibsen)의 희곡 <페르 귄트 Peer Gynt>의 극음악을 쓰고, 노르웨이 정서가 가득한 피아노 소품집 여러 권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작곡가와 음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덴마크의 속국, 스웨덴의 연방 체제하에 있던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그리그는 노르웨이의 정서와 민족정신을 담은 음악으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민족주의 음악가(국민악파)였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그의 고향 베르겐(Bergen)에는 그의 생가가 잘 보존되어 노르웨이를 찾는 관광객들을 부르고, 해마다 국제 음악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한 세기 좀 지나 베르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또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클래식 성악을 공부한 소프라노지만 오페라나 가곡보다는 성가곡, 크리스마스 캐럴 등 대중적인 음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성악가의 이름은 시셀 쉼르세뵈(Sissel Kyrkjebø, 1969~). 그냥 시셀(Sissel)로 불립니다. '시셀'은 음악의 수호성인 '성녀 세실리아'의 노르웨이식 이름입니다. 시셀은 지금도 한창 활약하는 크로스오버 소프라노로서, 음색이 얼마나 청아하고 깨끗한지,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듯합니다. 그녀는 1994년 노르웨이 릴리함메르 동계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 무대에 섰던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여름날, 서늘한 빙하의 나라 노르웨이가 배출한 두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더위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쉬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시셀이 부르는 그리그의 <페르 귄트> 가운데 '솔베이그의 노래'와 스칸디나비아의 성가곡 <구세주여, 거룩한 날개를 부드럽게 퍼주세요. (Bred dina vida vingar)>는 우리를 주님이 펼쳐주신 날개 아래에서 평화로이 휴식하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간을 견뎌낼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시셀(Sissel)이 부르는 '솔베이그의 노래'



구세주여, 거룩한 날개를 부드럽게 퍼주세요. (Bred dina vida vingar / The Holy Wings) / 시셀 (Sissel)



1991년 TV 콘서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는 서울주보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현대를 흔히 정보화의 시대라 부릅니다. 세상은 상상을 초월해서 발전된 정보화로 인해 동시대의 모든 사건을 같은 시간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며 국경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실제로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의 주보성인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시대의 표징을 읽었고, 예언적 눈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던 때 유럽은 인쇄, 영화, 신문 등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출현하고 발전하면서 대중 문화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놀라운 대중 매체들을 수용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하느님의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홍보는 당연히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영성에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서울주보는 항상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서울주보를 제공했고, 지난해 4월에 카카오톡 서울주보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 채널의 강점은 지면의 제약 없이 사진을 제공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사가 제한되고 신자들이 성당

에 자유롭게 오지 못하면서 서울주보를 읽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고려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주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연계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달은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빠르게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거짓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 등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선익이 되기 위해서는, 새 기술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고 증오와 불화를 조장하며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은 사용자에 따라 이기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흥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미디어를 통해 선교할 때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글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릴 때도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 단순성, 기도 생활, 공부, 풍기는 기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응답하라1978>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18일(주일)은 '농민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2년 7월 15일 허창덕 치료 신부(73세)
- 1997년 7월 12일 정옥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8세)
- 2009년 7월 16일 이병문 베드로 신부(65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 ①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②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문의: 02)774-3488).

교구청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취소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7월17일(토) 미사는 없습니다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단 목요일 대상별 모임은 정상 진행됩니다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or.kr)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루크클라스 50주년 '믿음, 희망 그리고 빛': 전관
 전시일정: 7월14일(수)~19일(월)

제26회 농민주일 기념행사

내용: 농민주일 기념미사(유경춘 주교, 사제단 공동집전), 토종 종자 전시 및 문화마당, 명동보름장 현장 이벤트 등
 때, 곳: 7월18일(일) 10시~16시, 명동대성당
 문의: 02)727-2363, 227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평협 제15회 우리 성가 공모

주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찬가, 한국 순교자 찬가 / 마감: 8월20일(금) 17시
 자격 및 제한: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1인 1곡
 출품 / 접수: 이메일(clak0723@naver.com)
 자세한 내용은 www.clak.or.kr 참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78차 미사(내마음의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7월1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춘천교구 평강 본당, 이천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된 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온라인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 · 반장 /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때: 8월1일(일)~9월30일(목) / 회비: 2만원(7월27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사랑의 손길 상반기 모금 현황

후원에 대한 후기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obos.or.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1월 사연
 가나 삼위일체학교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모금 기간 (1월 2일~2월 5일)
 총 모금액: 44,654,000원



4월 사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치료지원사업)
 우리 가족은 기적을 기다립니다
 모금기간 (4월 3일~30일)
 총 모금액: 76,848,557원



2월 사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치료지원사업)
 한솔이의 꿈을 지켜주세요
 모금 기간 (2월 6일~3월 5일)
 총 모금액: 72,714,860원



5월 사연
 방글라데시 나자렛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모금기간 (5월 1일~6월 11일)
 총 모금액: 73,220,567원



3월 사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치료지원사업)
 어린 세 딸 곁에는 아직 아빠가 필요합니다
 모금기간 (3월 6일~4월 2일)
 총 모금액: 102,593,000원



6월 사연
 가톨릭청소년아동쉼터 서울A지트(아지트)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서울 아지트
 모금기간(6월 12일~7월 2일)
 총 모금액: 68,345,439원(7월 1일 기준)

인준단체 일람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상담 / 문의: 010-2042-8353

대상: 고3·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 심재현 신부

노들담 교육관 묵상 피정

때, 곳: 2박3일 7월15일~17일·7월28일~30일 1박2일 7월23일~24일, 노들담 교육관 피정센터(종로구) / 문의(접수): 010-4440-0731

콩당콩당 수도원 하루 체험 / 문의: 010-9816-0072

랜선을 뛰어넘는 수도원 여행 / pddm.or.kr
때, 곳: 7월25일(일) 10시~16시,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주최) /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7월23일~26일, 7월30일~8월2일, 8월13일~16일, 8월20일~23일, 9월3일~6일, 9월24일~27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용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피정: 7월30일~8월2일, 8월5일~8일, 8월12일~15일, 8월21일~23일, 9월2일~4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1차	7월16일(금)~24일(토)	문의: 061)373-3001,
제92차	8월13일(금)~21일(토)	010-3540-9001

가정성교회 8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8월4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첫토 성모 신심미사	8월7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회비 없음, 식수 준비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접수): 010-9099-2337(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4박5일	7월21일~25일
이나시오영신수련 4박5일	7월21일~25일
세계절(여름) 피정	7월24일 10시~16시
'생명력살리기' 워크샵	7월30일~8월1일
'천미반오소서' 가을강좌	9월9일~11월11일 매주(화) 14시~16시

성모님 사도직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때: 7월19일(월) 10시~13시 / 문의: 010-9620-4820
곳: 가톨릭회관(명동) 7층 강당 / 미사 있음, 회비 없음

젊은이 몸신학 피정

때: 8월6일(금)~8일(일) 2박3일 / 회비: 8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명창) / 대상: 39세 이하 청년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교육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장기(1년 이상)·단기(1년)
대상: 초5~고1 / 현지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박(학업중단·위기) 청소년(13세~24세)
교육과정: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활동,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문의: 02)2691-6543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양천구 신원3동)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강의 주제: ① 악의 원천인 사탄에 대한 신학적 이해 ② 욕망, 영혼의 걸림돌? 디딤돌? ③ 하느님 안에서 참된 자아와 관계 회복 ④ 로마의 성 이나시오 회심 500주년-회고와 전망 ⑤ 영신수련을 꿰뚫는 핵심 '검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 / 강사: 유성모 신부, 주원준 박사 및 예수회 사제(김영훈·김형철·신원식·이규성·권오만)
현장 강야: 9월14일 개강, 매일 둘째·넷째(주) 오전 10시~12시(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 동영상강의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국약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약성가 반주장구	중급 매주(목) 15시30분, 초급 매주(수) 15시30분, 매주(목) 13시30분
국약성가캠프	9월3일~5일(2박3일)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문의: 02)727-2472

모집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봉사자 모집

대상: 상담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신자 여성
봉사내용: 전화상담(가족·심리) / 문의: 02)990-9360

대치2동성당 청년 필레몬함주단 단원 모집

대상: 악기 연주 가능한 청년 신자
문의: 02)565-1994 대치2동성당 사무실

2021년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38-7831
대상: 현재 9세~12세 가톨릭(예비)신자
연습: (화) 18시, (일) 13시 / 접수: 신청서 이메일 발송
오디션: 8월29일(일) 13시 / 자유곡 1곡(악보 지참)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참조

미사

성모님 발현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7월13일(화)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7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7월28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오기선요셉신부 31주기 기일미사·월례미사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김정수 신부
의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7월30일(금)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모든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만 참석 가능
서울 후원회 미사 / 내용: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때, 곳: 7월16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명동)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코로나19 대응 위해 인원제한: 접수 필수

인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가톨릭회관 사무실 임대

회관 내 사무실 임대공간의 정리로 인하여 공실이 된 사무실을 수도회와 교회 단체에 임대합니다 / 문의: 02)727-2304 가톨릭회관 관리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피부과
성사생활 가능, 간병인 상시 모집 / 문의: 041)950-100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알코올중독상담(부천성모병원)

생명의신비상 수상기관
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8주 재활프로그램
가족자조모임(AI-anon), 최고의 전문성과 높은 회복률
수시상담 가능 / 문의: 032)340-7215, 6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중환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 (월~토) 진행

응답동성당 '오쇼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 마음자리 입소 안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의 편안한 생활터 마음자리 1인 1실 제공 / 문의: 02)2691-4365, 010-6296-1045
대상: 미혼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 홈페이지: www.maumjary.com
지원내용: 출산 전·후 진료, 산후조리원 이용, 입양 숙려상담, 양육·자립 무상 지원 /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가 있으면 본 시설로 연락주세요
곳: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3나길 53(화곡동)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사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상담실

곳: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 상담실(전철 7호선 신공역 4번 출구) / 문의: 02)841-0524, 010-2382-3524

나와 가족이 행복해지는 심리강좌	8월24일(화) 10시 ~12시30분(12주)	김은희 수녀 (상담심리사 1급)
자신과 타인의 연결을 위한 깨어있는 대화	8월25일(수) 10시 ~12시30분(8주)	엄영주 수녀 (상담심리사 1급)

온라인 복음화학교 '치우치우TV' 구독 안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우치우TV를 검색한 후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앙과 생활의 꿀팁 영상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올라옵니다 /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학교

요나 성당 수련원

대천해수욕장 성당(요나 성당)이 수련원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자연을 감상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www.yonaresort.com-요나성당 검색
속박 문의·예약: 041)934-7758 요나 성당 사무실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 문의: 032)930-8500, 8534

성내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478-4181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컴퓨터 활용(한글·엑셀 등)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7월24일까지 우편·등기(우 05395,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15길 58) 및 방문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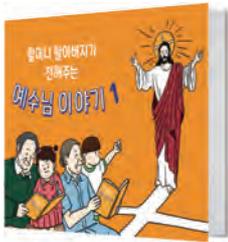
서울주보 게재신청 안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말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17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8월1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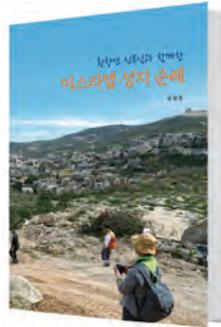


신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1

서울대학교구 서목국 노인사목팀
들숨날숨출판사 | 36쪽 | 7천5백원
문의: 02)2279-9681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어렵지 않게 손자녀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색칠과 스티커 작업, 문제 풀이를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신간

황창연 신부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유영준 지음
기쁜소식 | 140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취업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저자는 순례를 하면서 원하는 해답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성지순례 길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이 된 한 청년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 이야기다.



음반

열일곱2다

이시돌사운드 | 60분 | 온라인 음원 발매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음)
문의: 010-5064-2034

가톨릭 생활사가 찬양크루 '열일곱이다'가 정규 2집 '열일곱2다'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6월에 디지털 싱글로 발매된 '사제의 기도'부터 올해 5월에 발매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까지 다양한 장르의 12곡을 하나의 앨범에서 들을 수 있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토빗기·유딧기·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권)

가톨릭성서모임 역음 | 성서와함께
토빗기·유딧기·에스테르기 72쪽, 마카베오기 상·하 60쪽 | 각 4천원 | 문의: 02)822-0125

성경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cpbc TV 및 cpbc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가톨릭평화방송 TV 프로그램] 가톨릭 청춘어게인 시즌 2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가톨릭 청춘어게인>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에서는 노년의 3대 걱정거리인 빈곤, 질병,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봅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영적인 아픔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가톨릭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인 '영적 치유'를 통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매주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오픈 토크식으로 함께 하는 어르신 맞춤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방송시간 [TV] 금 7시, 일 7시, 월 19시, 목 14시 | [유튜브] 월 19시 업로드

[cpbc 라디오] 여름특집



<신신우신> 휴가 특집으로 '에코에코 환경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들과 퀴즈, 게임 등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환경오염의 실태, 신박한 환경보호 실천 방안들을 알아보고 제안하고자 합니다(7월20일~22일 12시15분~13시).



<감정식당> 여름특집 '이름표를 붙여, 네 감정에'.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헛갈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어 소중한 우리의 감정을 요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8월1일 13시~14시).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 르 티 노) 신부
부 주 임 김한국(베 드 로)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는 본당 미사 참례 지침 안내 (2021년 7월 15일부터 적용 예정)

2021년 7월 15일(목)부터 적용 예정인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추어
수정될 미사 참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좌석수의 30% 입장)를
적용하여 미사 참례 인원은 교적과 상관 없이
미사당 375명으로 제한됩니다. 단, 백신 접종자는
입장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 백신 접종자 미사 참례 방법 (3가지 방법 중 선택)
 - ① 사전에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 어플리
케이션(쿠브:COOV)을 본인 핸드폰에 설치하고
인증 후 입장
 - ② 코로나 백신접종 종이증명서 + 신분증을 지참
하여 인증 후 입장
 - ③ 신분증에 부착한 예방접종스티커로 인증 후 입장

● 2022년도 상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추첨일시·장소 : 8월 27일(금) 오후 2시 / 대성당
☞ 오후 1시부터 대성당 입구에서 추첨순서 번호표를
배부합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혼인예약기간 : 2022년 1월 ~ 6월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	17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 ※본당 홈페이지→혼인성사 안내→'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추첨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해외에 계신 분들(혼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9월 9일(목) 오전 9시
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6월 28일 ~ 7월 4일 : 300,000원) 누계 : 2,198,918,958원

익 명 : 100,000원 | 익 명 : 100,000원
이 정 화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불현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한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 예비신자 교리학교 바오로학교 3기 수강생 모집

명동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 나눔교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바오로학교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예비신자들의 신앙 길잡이와
모범이 되어 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구비서류 : ① 봉사 신청서
② 교적 사본 ☞ 교무금 납부내역 포함
- 접수기간 : 6월 27일(주일) ~ 7월 18일(주일)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및 본당 대표메일
(mdsdca@catholic.or.kr)로 접수

※'봉사 신청서' 양식과 모집 대상 및 선발 조건에
대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조

● 제26회 농민 주일 기념행사

오는 7월 18일은 연중 제 16 주일이자 제26회 농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5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7월 셋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제정하여 교회 전체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농민 주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기념미사 : 7월 18일(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과 사제단 공동집전
- 기념행사 : 생명농산물 나눔장터, 전시·홍보마당
오전 9시~오후 4시 / 들머리, 회관앞마당
- 문 의 : ☎ 2068-7066, ☎ 727-2277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6/28-7/4).....	23,062,000
· 연중 제 14 주일 현금.....	16,308,000
· 감사현금 (6/28-7/4).....	976,000

고 니콜라오 / 김 발렌티노 / 김 에스테르
도 로사 / 신 레오니아 / 이 대건안드레아
임 글라라 / 임 사무엘 / 조 마리아막달레나
익명(1)